

참된 교회와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

최정균 목사
(김포한강 교회)

서론

성경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경은 각 권이 쓰일 당시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에 제약을 받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 졌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 시대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예외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성경이 쓰일 당시(then)와 성경을 읽는 지금(now)에는 시간적, 언어적, 역사적, 문화적인 차이 내지는 간격이 존재한다. 만일 누군가 이 간격(distance)을 무시한 채 성경을 읽게 되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해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일 당시'와 '읽는 오늘'의 간격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본문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본문이 쓰일 당시의 세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세 시대의 신비적인 해석에 대한 반동과 반감 때문에 성경을 극단적으로 인간의 종교적 경험의 산물인 고대 문서로만 취급하여 역사적-문화적인 한계 내에서만 읽으려고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로써 성경 스스로가 주장하며 자증(自證)하는 바, 신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교회 역사에서 성경의 신적이며 인간적인 '이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적인 문서로 혹은 인간의 문서로 어느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성경 해석에 의해 수많은 오류들이 생겨났던 것에서 교훈을 얻어 균형 잡힌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

1. 성경 해석의 필요성

우리 대부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읽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해한 것이 성령과 그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의 의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우리의 경험, 문화, 단어나 사상에 대한 선입관 등등-을 늘 성경 본문으로 가져간다.¹⁾

성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은 성경의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의 커다란 간격(distance) 때문이다. 이 간격은 지리적이고 시간적인 간격²⁾을 뛰어넘어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며 언어·문화적인 배경과 상황의 간격들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시대적인 환경의 영향을 초월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1) 고든 D. 피·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옮김, (서울:성서유니온선교회, 1988), 23.

2) 시간적인 간격에는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간'과 '본문에 실제로 기록된 시간' 사이의 간격도 존재한다.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어 자체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이해하는 방식은 각각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 간의 언어적인 소통은 한계와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이런 사고와 표현방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신학적 전제³⁾나 경험적, 문화적 선 이해⁴⁾를 가지고 무리하게 이해하려고 시도하게 되면 저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는 왜곡된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설교자는 특히 자신의 주관적 목적을 성경 본문에 부과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설교자는 훈련과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이 본문을 주해하기 전에 이미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는데 대해 상당히 알고 있다. 더욱이 설교자는 다음 주일 예배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문을 선택해 놓는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목적이 성경 본문의 목적을 누르고 그 본문을 침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⁵⁾

또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은 성경의 이중적인 특성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인간이 기록한 책이기에 하나님의 책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믿으려면 성령의 조명과 인간의 해석이 동시에 필요하다. 성경이 신적인 문서라는 측면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인간의 해석 작업만으로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의 문서라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해석 작업이 없이 성령의 조명하심만으로는 올바르게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령의 조명은 인간의 해석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즉 인간의 해석을 위한 노력 없이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성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알 수는 없다. 성경은 기록될 당시의 언어와 시간과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해석과 이해는 올바른 해석의 원리와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가능하다. 성령은 저자에게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셨지만 저자들로서 하여금 직접 기록하도록 하셨듯이, 성경을 읽을 때에 신자에게 조명을 하시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지성을 사용하여 올바른 해석방법들과 적법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해석하게 하신다.

2. 성경 해석의 방법론

성경 해석에 관한 도서들에서 제시하는 성경 해석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과거에 성경의 신비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알레고리적, 영적 해석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졌던 ‘자의적인 해석들’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온 방법론들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3) “또 하나의 위험스러운 측면은 우리가 이미 형성된 신학적 의제를 갖고 본문에 다가갈 때 생겨난다. 즉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특정한 관점을 갖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며, 단지 본문을 사용하여 우리 의지에 들어맞는 세부사항들을 찾게 된다. 우리가 찾으려는 의미에 들어맞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은 단순히 뛰어넘거나 무시해 버린다.”(J. 스코트 듀발·J. 다이엘 헤이즈, 『성경 해석』, 류호영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130)

4) “선 이해는 우리가 본문에 가져가는 우리의 모든 이전 선입견들, 즉 우리가 이전에 미리 생각했던 개념들과 이해들로서, 이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본문을 자세히 연구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잠재의식적으로 이미 형성되어진 것들이다....우리 문화는 우리가 본문을 읽어갈 때 본문을 왜곡시키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본문을 뒤틀어서 우리의 문화 세계에 들어맞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J. 스코트 듀발·J. 다이엘 헤이즈, 129, 131)

5)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역, (서울: 여수론, 1998), 208.

주목을 받는 것은 ‘문법적-역사적 해석’(grammatico-historical exegesis)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법적-역사적 해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성경의 신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성경해석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성경을 보편적인 인간의 문서적 측면을 부각시켜 접근하는 해석(문법적-역사적-문화적 해석)과 신적인 문서로 취급하는 해석(신학적-정경적 해석)의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2.1 문법적(문학적)-역사적(문화적) 해석

역사적 문맥은 책마다 다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저자와 당대 독자들의 **시대와 문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저자의 상황과 관련된 지리학적,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성경본문**-여기에는 편지, 시, 선지자의 예언 및 여타 장르의 책이 있다-과 관련된 요인이다.⁶⁾

문법적(문학적)-역사적(문화적) 해석의 필요성

문법적-역사적(문화적) 해석은 성경의 저자와 일차수신자들이 사용한 언어와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성경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간격을 뛰어넘어 성경이 말하고자하는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성경이 쓰일 당시의 언어 표현과 이해와 관련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며 언어문법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⁷⁾ 문법적-역사적(문화적) 해석은 중세 시대의 성경에서 ‘사중적 의미’(문자적, 도덕적, 알레고리적, 영적)를 찾아야 한다는 풍유적 해석⁸⁾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비판⁹⁾과 함

6) 고든 D. 피 · 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35.

7)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치열한 전투를 다룬 사무엘상 4장을 공부할 때, 주전 11세기 블레셋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 그 본문을 더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한 문제들에 응답하는 신약의 서신서들을 공부할 때도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갈라디아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김구원,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복있는 사람, 2013), 178.

8) “(중세 시대에) 일반적으로 성경은 신비로 가득한 책으로 여겨졌고, 오직 신비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여겨졌다.”(루이스 벌코프, 『성경 해석학』, 박문재 역, (경기: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23. 예를 들어서, 중세의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이 4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했다. 문자적:고대의 유대인 도시, 풍유적:기독교회, 도덕적:신실한 영혼, 영적:천상의 도시(윌리엄 클라인 외 2인, 『성경해석학 총론』, 류호영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1997), 99) “풍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풍유/알레고리는 광범위한 상징주의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풍유는 비유와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큰 유비 혹은 대응관계를 지닌다. 여기서 유비 혹은 대응관계란, 이야기 속에 있는 대부분 또는 많은 세부사항들이 어떤 것을 대변 혹은 나타낸대거나, 몇몇 특정한 뉘앙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J. 스코트 듀발 · J. 다이엘 헤이즈, 294.

9) 르네상스(문예부흥)는 원문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킴으로서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로이힐린이나 에라스무스와 같은 학자들이 성경 해석을 위해 원어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성경 원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성경의 알레고리적(영적) 해석, 성경의 사중적 의미는 점차 비판되었고, 성경은 오직 하나의 의미만 지니고 있다는 원칙이 정립되었다. 루터는 성경 본문의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칼빈은 알레고리적인 해석방법이 사탄의 술수라고 비판하였고 성경이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빛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모든 대목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였으나 칼빈은 모형적이고 그리스도중심적인 해석의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그것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루이스 벌코프, 『성경 해석학』, 박문재 역, (경기, 크리스찬다

께 대두된 것이다. 풍유란 일종의 문학적 기교로서 성경 역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풍유 혹은 알레고리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경본문을 풍유 혹은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방법은 해석자의 상상력으로 본문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경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들만이 알레고리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구약 본문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방법을 무작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대의 복음주의 진영의 해석방법은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왔으며, 본문 자체보다는 상상에 훨씬 더 많이 기초하고 있는 기상천외한 풍유적 해석을 교회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왔다. 그러나 풍유적 해석이 여전히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며, 아직도 이 해석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일단 저자가 본문의 의미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면, 많은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기발한 풍유적 해석을 통해서 본문을 과도하게 영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풍유적 해석을 통해서 구약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습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당신이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의미는 반드시 본문의 문학적 문맥과 역사적-문화적 문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¹⁰⁾

문법적-역사적 해석이라는 표현은 카일(Karl A. G. Keil)이 가장 먼저 사용했는데, '해당 언어의 문법적 법칙과 역사적 사실과 형편을 터득하여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¹¹⁾ '문법적-역사적 해석'이라는 "용어는 원래의 언어 및 원래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본문을 상세히 분석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 이 방식은 풍유적인 해석과 영어(혹은 다른 현대 언어)를 바탕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성향 및 우리 자신의 관습과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려는 서양에 대한 의도적인 반대에서 발전했다."¹²⁾

역사적 문맥 연구는 우리가 영속적인 원리라는 알곡을 감싸고 있는 문화적 껍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역사적 문맥 연구를 통해서 본문의 원래적 의미라는 단계에서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통찰들이 동일하게 생겨나며 특히 해석자가 주어진 본문의 역사적-문맥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을 때 본문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된다.¹³⁾

그레이다누스는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 이유를 그것이 '더 나은 이해'와 '객관적인 통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 본문이 당시의 청중들이 처한 상황에서 전달된 것이기에 그 상황을 잘 이해할수록 그들의 입장에서 본문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해서만 특정한 본문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이거나 독단적인 해석이 아닌 원래의 의미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통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법적(문학적) 해석

이제스트, 2008), 25~27 참고).

10) J. 스코트 듀발·J. 다이엘 헤이즈, 294, 296.

11) 박형용, 『성경 해석의 원리』, (경기:합신대학원출판부, 2002), 253.

12) 월터 C. 카이저·모이세스 실바, 『성경 해석학 개론』, 강창현 역, (서울:은성,1996), 365.

13) 크레이그 블룸버그·제니퍼 마클리, 『신약성경 석의방법』, 류호영 역, (서울:대서, 2012), 147.

14)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162~165를 참고하라.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한데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성경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수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문법적 해석만을 따로 설명하자면, ‘문법적 해석’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연구와 문법, 문장의 구조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본문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법적인 규칙을 이해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문법적인 해석은 필수적이다. 박형용은 문법적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문법적 연구는 항상 그 원어의 법칙과 원리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단어의 뜻을 연구하며,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격, 법, 사상이 문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상이 발전 등을 연구하여 그 언어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문법적 해석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문법적인 해석은 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용어들의 뜻이 문맥 안에서 이해될 때 올바르게 이해되며, 문장의 요점과 강조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문맥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문법적(문학적) 해석은 성경의 다양한 문학 장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려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로, 어떤 이는 편지로, 어떤 이는 시로, 어떤 이는 율법으로, 어떤 이는 잠언으로, 어떤 이는 예언으로, 어떤 이는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장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계시가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소통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문학 장르들은 성경 저자와 원독자들이 공유한 의사소통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¹⁶⁾ 이와 관련하여 트램퍼 룡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당대의 장르 속에서 그의 작품을 서술하시면서 민족의 문학적 관습을 사용하셨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사회에는 없는 제도인 제사장 제도와 왕정을 알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들 요소들은 우리로 우리가 읽고 있는 어떤 책이나 구절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연구할 필요를 일깨워준다. 언젠가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를 따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초의 청중의 시대, 즉 고대의 시대로 옮겨 놓아야 한다.”¹⁷⁾

역사적(문화적) 해석

그레이다누스는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적 해석에서는, 본문이 역사적 기록이므로 역사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즉 그 본문이 쓰여진 시대와 장소 및 문화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해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해야 한다. 누가 이 본문을 기록하였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왜 기록하였는가? 이 질문들은, 그 본문의 기록자와 그 본을 처음으로 듣게 된 청중, 기록된 대략적인 시기, 사회적 및 지리적 배경(출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역사적 해석은 ‘성경 기록이 쓰여진 때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문학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기록의 메시지를 그 원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그 기록에 대해 자세히 역사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다.”¹⁸⁾

15) 박형용, 255.

16) 김구원, 179~180.

17) 트램퍼 룡맨 3세, 『구약성경의 이해』, 김은호 역, (서울: CLC, 2004), 67.

18)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161.

역사적-비평적 해석

한편, 문법적-역사적 해석방법과 대치되는 해석방법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등장한 역사적-비평적 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성경의 신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인간의 문서로 취급하여 일반적인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이성과 합리를 동원하여 그 책을 비평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역사적-비평적 해석방법은 성경 기록들을 순전히 인간의 산물로서 생각하고 그 기록들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느냐 하는데 큰 관심이 있다.”¹⁹⁾

2.2. 신학적-정경적 해석(하나님 중심적-구속사적-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본문의 의미를 아는 일에는 인간 저자의 의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가 의식하고 있는 의도가 반드시 그 자신이 진술한 것들의 의미를 남김없이 다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특히 시와 예언적인 기록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므로, 오직 그분의 의도만이 성경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²⁰⁾

신학적-정경적 해석의 필요성

성경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인 역사성, 영감성, 통일성, 연속성, 계시의 점진성 등은 무신론적인 철학들과 반 초자연적이며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전제로 하는 현대 신학의 역사 비평적 방법론들의 무수한 도전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타당성을 잃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역사 비평적 방법론들의 오류와 한계점들에 대해서 공감하며 비판하는 신학자들이 있다.²¹⁾ 사실상 무신론적 전제하에서는 성경의 이런 신적인 특성들을 의심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의심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성경이 지닌 이러한 신적인 특성들은 성경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문헌들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일성이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읽도록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인도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앞에서 먼저 살펴본 문법적(문학적)-역사적(문화적) 해석으로만 그친다면 성경 자신이 입증하고 있는 신적인 특성들을 부인하고 다른 인간의 문서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문서’이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전제로부터 신학적이고 정경적²²⁾인 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²³⁾

19) 박형용, 259.

20) Payne, JETS 20/3 (1977) 243을 보라(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215에서 재인용).

21)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독일 신학자 에타 린네만(Eta Linnemann, 1926-2009)과 게르하르트 마이어(Gerhard Maier)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역사비평학에 기초한 현대 신학이 그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신학의 ‘과학성’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 그 신학은 비록 사교의 ‘중립성’을 주장하지만 뿌리 깊은 철학적 전제와 논리에 따라 하나님을 방법론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게르하르트 마이어, 『성경해석학』, 송다니엘, 장해경 옮김.(경기:영음사,2014), 569~591을 참고하라.

22) ‘정경적 해석방법’은 문법적-역사적 해석 방법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성경의 신적인 기원을 인정하고 그 통일성과 계시의 점진적인 성격을 근거로 하여 성경 전체의 맥락과 사상에 비추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형용 박사는 정경적 해석방법을 벌코프의 소위 ‘신학적 해석법’과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흡사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박형용, 263).

별코프는 성경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해석학에 대하여 글을 쓴 많은 저자들은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만으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에 요구되는 모든 것들이 충족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이 분과학문이 특별한 신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세 번째 요소를 인정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저자들도 있다. 카이퍼(Kuyper)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신비적 요소를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Theol. Enc. III, p. 101vv.), 바빙크(Bavinck)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역설한다(Dogm. I, p. 471). 클라우젠(Klausen)과 란더러(Landerer)는 신학적 해석에 대하여 말하고, 셸레리에(Cellerier)와 시켈(Sikkel)은 성경적 해석에 대하여 말한다. 그들은 모두 한결 같이 성경 특유의 신학적 요소를 제대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책들과 동일하게 다루기를 거부한다. 성경은 역사나 이차적인 저자들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오직 제1저자(Auctor primarius)이신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순전히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고찰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1)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2) 성경은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고, 성경의 각각의 책들은 그 전체 속에 통합된 부분들이라는 것; (3) 구약과 신약은 모형과 원형, 예언과 성취, 배아와 완전히 성장한 것이라는 관계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 (4) 성경의 명시적인 진술들만이 아니라 선하고 꼭 필요한 추론을 통해서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한다는 것.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문법적인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세 번째의 해석으로 보완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²⁴⁾ 게르하르트 마이어는 이러한 성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경적-역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²⁵⁾ 김구원도 주해와 적용 사이에 상호본문적(intertextuality) 연구를 넣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감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취라는 신약의 주제는 신약을 구약의 관점에서 혹은 구약을 신약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상호본문적 연구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호본문적 연적 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목적적 해석으로 보고 이것을 주해와 적용 사이에 넣을 것을 제안한다.²⁶⁾

만일 성경의 신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문서로 해석한다면, 그 해석의 결과물을 교회와 개인에게 적용하게 될 때에 도덕적, 모범적인 적용으로 제한되고 말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뚜렷한 성경의 의도나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본문을 기록한 인간 저자와 책을 구성한 편집자의 의도조차도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역사적인 본문’(Historical Texts)에 대

23) “영감의 신비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면 역사적 재구성과 단순한 문자적 의미 너머까지 탐구하는, 총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204.

24) 루이스 별코프, 141~142.

25) “성경 본문 해석이 단지 역사적 연구의 하위 연구라는 오해가 자라났다. 이로 말미암아 성경의 신학적인 면과 독특한 면이 좀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나는 ‘성경적-역사적’이라는 개념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어울리는 해석을 요구하는 성경의 특수성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물론 우리가 진지한 역사적인 관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게르하르트 마이어, 438

26) “이는 본문의 의미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확신에 근거합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과 명령, 책망, 충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호본문적 의미가 해석과 적용 사이에 위치한 것은 본문의 의미를 먼저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킨 후, 오늘날의 나에게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모든 성경 해석에 복음의 메시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나에게 적용된다면, 성경은 도덕 교과서, 동기부여 책, 혹은 자기계발서가 되어 버립니다.” 김구원, 190.

하여 '모범적(도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측과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측간의 논쟁과 관련한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코올러가 표현한 바와 같이,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성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이다. 역사적 본문을 해석할 때에 역사적 본문의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 특성은 하나님의 행동에 미치지 못하는 물음을 본문에게 묻는 모든 물음을 불충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역사적 본문의 의도는 인간의 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을 선포하는 것이다."²⁷⁾

총체적 해석 방법

그레이다누스는 계몽주의 이후 등장한 고등 비평적 해석이 폭넓은 문맥 안에서 종합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고,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오히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놓치고 분석적인 관심만을 갖는 '원자분해식 해석 방법'(atomistic approach)으로 설교학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총체적인 해석 방법'을 소개한다.²⁸⁾ 원자분해식 방법으로는 본문을 성경의 의도대로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신학자들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총체적 해석 방법이 시도되었는데, 1970년대의 차일즈(Brevard Childs)의 '정경적 접근 방법'(the canonical approach)이 제시되었고, 1981년에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는 '구문론적 및 신학적 방법'(syntactical-theological method)을 발전시켰는데 이 방법에서 오늘날의 성경 해석 원리들을 체계화하였다. 그레이다누스는 이런 총체적 해석 방법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책에서 성경의 역사적이고 문학적²⁹⁾인 탐구를 아우르는 '신학적 해석방법'을 제시한다.³⁰⁾ 궁극적으로 역사적-문학적 해석의 목표는 '신학적' 메시지에 있다는 것이다.

성경신학

그레이다누스는 총체적 접근 방법의 하나로 '성경신학'을 예로 든다. 그는 성경신학이 지닌 세 가지 측면(총체적인 접근 방법, 종적(통시적)으로 나타난 주제들, 점진적 계시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런 측면들 때문에 성경신학을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 영역을 다 포함하는 광범위한 해석 방법으로 평가하였다.³¹⁾ 게할더스 보스가 정의한 것처럼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을 다루는 주경 신학의 한 지류'로서 성경의 주제들과 개념들을 종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성경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주제에 대한 종적인 접근은 항상 무리한 체계를 억지로 부과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포괄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 때문에 성경의 각 권과 신구약 성경에 종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참된 주제들-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27) 시드니 크레이다누스,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권수경 역, (서울: SFC, 1989), 368.

28)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103~105를 참고하라.

29) 역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성경해석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대두된 구조주의적인 접근법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통시적'(diachronic) 접근의 한계를 비판하고 '공시적'(synchronic) 접근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역사성'보다 본문의 '문학'과 언어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로버트슨(David Robertson)은 이를 '틀 전환'(a paradigm shift)이라고 묘사하였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106~108을 참고하라.

30)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105~108을 참고하라.

31)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138~139를 참고하라.

나라(영역), 선택(은혜),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등등-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듯이, 각 부분은 반드시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각 본문도 역시 그 본문이 속한 더 큰 문맥에 나타난 주제들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³²⁾

성경의 종적인 주제들은 정적인 실재가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서 발전하고 변하고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 계시’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성경은 역사의 과정 속에 주어진 계시로서 계시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본문을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서 저자가 의도한 의미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본문의 의미를 계속 추구하여, 씨앗에서 자라나 꽃으로 활짝 피어난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이처럼 한층 깊고 충만한 수준의 의미를 ‘센수스 플레니오’³³⁾(sensus plenior, 충만한 의미, the fuller sense)라고 한다.”³⁴⁾ 브라운은 센수스 플레니오를 ‘인간 저자에 의해서는 분명히 의도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더 깊은 추가적인 의미’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에는 본문에 해석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부과되는, 해석의 남용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라소르(William LaSor)는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충만한 의미를 찾으려면 언제나 그 본문의 문자적 의미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센수스 플레니오가 문법적-역사적 주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해로부터 발전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다가 신학적 교리나 가르침을 집어넣고 그 본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요구하는 충만한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⁵⁾

성경의 궁극적인 의미는 각 성경의 인간저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남김없이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므로, 오직 성경 전체를 통일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하신 그분만이 성경의 궁극적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전제에 따른 ‘성경의 통일성’과, 모든 계시는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고 구속사의 역사적 전개와 함께 점진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분리되어 읽어서는 안 되며 종교개혁의 해석 원리인 성경을 성경에 대조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성경 유추 사상’(analogia Scriptura)에 근거하여 모든 본문들은 반드시 그 문맥인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한다.

그레이다누스는 성경신학적인 접근 방법을 설교에 최대한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우리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설교에 필요한 수많은 통찰력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성경신학은 다른 어떠한 성경해석 방법들 보다 더 많이, 총체적 해석의 중요성을 특히 역사적 영역과 신학적 영역에 연관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신학은, 성경을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이며 도덕주의적(moralistic)으로 이해하고 설교하는 일을 가장 잘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theocentric) 연구 방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성경신학은, 성경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구약과 신약을 연결 짓는 주제들을 드러내므로, 설교자로 하여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설교의 흐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며 현재의 청중을 향해 전달되어야 할 그 말씀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준다.”³⁶⁾ 성경의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성경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Christocentric

32)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143.

33) 이 표현은 “스페인 예수회 소속 안드레아 페르난테즈(Andrea Fernandez)가 1925년에 ‘성경 강요’에 기고한 소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더 발전시킨 학자는 가톨릭 신학자인 브라운(Raymond E. Brown)이다.” 박형용, 301.

34)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145.

35)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145를 참조하라.

36)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146.

preaching)를 요구하는데, 이 작업을 성경적으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무리하게 본문과 연결시키기 위한 알레고리적 해석이나 제 맘대로 푸는 식의 모형론적 해석 (typologizing)과 같은 함정들을 유의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타는 계시의 충만함으로부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레엄 골즈워드(Graeme Goldsworthy)는 해석학적 목표를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목표 때문에 성경계시와 특별히 성경신학의 모든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경신학이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성경신학은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성경신학은 일반 성경반에 적합하니 의도적으로 설교단에서 선포되어야 한다.....성경신학은 성경에서 어떤 부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의 중심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이 연결고리는 고대 본문을 현대 독자와 청자들에게 타당하게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관점이다.”³⁷⁾

3. 설교를 위한 성경 해석의 과정

성경해석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가장 처음에 위치시키는 ‘본문 비평’과 ‘사적인 번역’은 생략하였다. 바쁜 목회적 상황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설교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상당히 전문적이며 시간이 많이 소용되는 이런 작업들은 신뢰할만한 영문 번역 성경들과 사전들, 전문적인 주석들, 컴퓨터 소프트웨어들,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발전되고 있는 전문적 신학자들의 자료 등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³⁸⁾

3.1. 관찰(observation)하라.

듀발과 헤이즈는 관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당신이 본문을 맨 처음 읽은 다음에 곧 바로 그 본문에 대한 적용으로 나아가간다면, 당신은 그 본문에 대해 이전에 갖고 있던 선이해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당신은 본문 안에 있는 새롭고도 흥미로운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게 되며, 성경은 당신에게 따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신이 하는 설교나 성경강의는 모두 다 밋밋하고 따분할 것이요, 그것은 성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대변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결코 따분하지 않다. 우리는 더 많은 통찰력과 더 많은 이해 가운데 성경 읽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가 피상적인 본문 읽기에서 떠나 진지한 본문 읽기로 들어가게 되면, 본문은 열려지기 시작하며 우리는 본문에서 보물의 광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게 된다. 성경의 금광맥에는 그 바닥끝이 존재하지 않지만, 금광맥이 스스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부지런히 파 들어가야만 한다.....일단 우리가 피상적인 성경 해석의 초기 단계인 이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본문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본문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단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본문을 관찰하는 단계 이후에

37) 그레엄 골즈워드, 『복음중심 해석학』, 배종열 역, (서울: CLC, 2010), 374.

38) 직접 한다고 어설픈게 하는 것보다 이런 전문적인 자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오는 것들이다. 우리의 첫 단계는 본문을 읽는 것이요, 가능하면 많이 세부사항을 주목하면서 마치 명탐정 설록 홈스가 범죄 현장을 살피듯이 자세하게 본문을 관찰하는 것이다.”³⁹⁾

관찰을 통해 어떤 사항들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것은 본문의 문장 형식, 반복어나 반복 구, 관계사나 접속사, 시간, 장소나 위치, 비교나 대조, 흔히 알려지지 않은 단어나 표현, 각 문장의 핵심, 상징적 표현, 논리적 이치, 색다르고 예외적인 것, 관련된 실제, 문법적인 요소⁴⁰⁾ 등이다. 관찰을 돕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본문에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관찰한 것을 노트에 기록해야 한다. 사람은 쉽게 망각하기 때문이고, 생각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기에 문장으로 적을 때에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대충 무엇이든 떠오르는 대로 기록해 놔다가 해석 작업을 하면서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관련 있는 것들만 추려서 정리하면 된다.

3.2. 해석(exegesis)하라.

주해(exegesis) 단계는 관찰 단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곧 관찰을 통해 발견한 사실을 ‘역사-문법적으로’ 설명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본문에 낯선 용어가 등장하여 사전을 통해 그 의미를 찾고, 낯선 지명이나 관습, 사건이 등장하면 참고서적을 통해 그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저자가 은유와 같은 수사적 언어를 사용했다면 그것의 수사적 의미를 궁구하며, 문맥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문의 주제 혹은 메시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이 해석 단계의 목표는 본문을 원저자의 의도에 맞게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원독자들이 이해했을 방식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저자의 의도나 원독자들이 이해한 의미를 우리가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 대한 역사적, 문법적, 맥락적 해석을 통해 그에 근접한 지식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역사-문법적 지식은 성경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⁴¹⁾

3.2.1. 문맥을 살피라.

본문의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가장 중요한 원리는 본문의 문맥을 살피는 것이다.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문맥이 의미를 결정 한다’는 것이다. 문맥을 살피는 일에는 비단 저자와 수신자들이 몸담고 있었던 역사와 문화의 배경(역사적-문화적 문맥-Historical-Cultural Context)을 고려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이 인접한 단락이나 혹은 본문이 들어있는 책의 문맥(문학적 문맥-Literary Context)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문맥을 살피는 일은 크게 ‘저자와 수신자들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역사적-문화적 문맥)을 파악하는 일과 ‘본문 자체의 문맥’(문학적 문맥)을 연구하는 일로 진행된다.

문법적-역사적(문화적) 해석이란 성경 본문(text)과 본문의 상황(context)을 함께 고려하는 해석이다. 모든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문맥(context)과 관련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contents)과

39) J. 스코트 듀발·J. 다이엘 헤이즈, 38~39, 41.

40) 노튼 스테렛, 『성경 해석의 원리』, 한국성서유니온 편집부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1978), 50~53을 참고하라.

41) 김구원, 176.

관련된 질문이다. 다시 ‘문맥’에 관한 질문에는 역사적인(historical) 질문과 문학적인(literary) 질문 두 가지가 있다....두 번째 주요 범주는 저자의 실제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내용’은 단어들의 의미와, 문장의 문법 관계, 그리고 사본에 따라 본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원본을 택하는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⁴²⁾

더글라스 스튜어트(Douglas Stuart)의 다음과 같은 조언은 설교준비를 위한 실제적인 해석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당신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당신에게 허용된 짧은 시간 내에 해당 본문의 문학적-역사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고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선별해야 한다. 첫째, 중요한 점들에 집중하라. 회중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문학적 특징들과 역사적 사건들을 선별하라. 당신의 회중이 해당 본문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러한 해당 본문의 문학적·역사적 측면들을 고려에서 제외하라. 달리 말하면, 당신은 핵심적인 내용들 - 해당 본문의 배경을 잘 제시하기 위하여 꼭 지적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 - 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것들은 포괄적이라기보다는 대표적인 것이어야 한다. 둘째, 요약하라. 몇몇 경우들에서 당신은 해당 본문들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 당신의 설교 시간 중 1~2분 이상을 할애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해당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과 전체적인 배경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배경 정보에 대한 짤막한 요약문을 작성하도록 하라.”⁴³⁾

3.2.1.1. 역사적-문화적 문맥(배경) 파악하기

어떤 성경 구절의 올바른 해석은 그 구절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일치하는 해석이다.⁴⁴⁾

성경 본문 자체에는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저자와 수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과 정보 등이 소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자가 본문을 통해 전달하고자했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저자와 일차수신자들의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습득하고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그들의 시각으로(비록 완전히 우리의 편견을 배제하고 그들의 시각으로만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성경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적-문화적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담고 있는 책 전체에 대한 배경 연구와 본문 자체의 역사적-문화적 문맥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책 전체의 구성의 정황들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 곧 저자, 수신자 혹은 독자,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저작 목적, 저작 배경과 정보들이 포함되며 아울러 본문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토픽이나 세부 사항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인 정보들이 포함된다.”⁴⁵⁾ 책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핸드북, 신구약 개론서들과 개관서들, 좋은 주석들을 참고할 수 있으며, 본문 자체의 문맥 연구를 위해서는 지도, 성경사전들과 성경백과사전들, 주석들, 신구약 역사 연구서들, 고대의 삶과 문화에 대한 특별한 연구서들,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주해에 도움을 주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각주를 참고하라.⁴⁶⁾

42) 고든 D. 피·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34~35, 37.

43) 더글라스 스튜어트, 『구약주석 방법론』, 박문재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137~138.

44) 윌리엄 클라인 외 2인, 342.

45) 크레이그 블룸버그·제니퍼 마클리, 20.

46) 성경 해석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도서들의 목록은 다음을 참고하라. D. 스투워드, G. 피, 『성경해석 방법

3.2.1.2. 문학적 문맥(본문) 파악하기

문학적 문맥은 본문이 취하고 있는 ‘특정한 형식(문학적 장르)’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당신이 연구하려는 본문내의 ‘단어들’, ‘문장들’ 그리고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단락들’과 관련되어 있다.⁴⁷⁾

여기에는 본문이 속해 있는 책 자체 안에 있는 본문의 가장 인접한 문맥들이 포함되며 아울러 동일한 책 내에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문맥들과, 또는 성경처럼 여러 책들의 모음집의 경우가 그렇듯이 본문이 속해 있는 책과 가장 관련이 있는 인근 저작들이 포함된다. 모든 비유적인 표현들과 특징적인 문학적 형식이나 장르들 또는 전체적인 수사종류에 대한 규명 역시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덜 분명하고도 덜 직접적인 본문의 중요한 뉘앙스들을 놓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함이다.⁴⁸⁾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성경해석

장르는 저자와 독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대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해석에 매우 중요하다. 본문을 문맥에 따라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성경을 이루고 있는 문헌들의 다른 범주들(장르들) 혹은 형태들⁴⁹⁾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장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본문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왜곡된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만날 때, 당신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읽는 대상의 장르에 의해서 설정된 규칙들, 즉 의사소통의 특정한 규칙들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만일 이러한 규칙들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대상을 잘못 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⁵⁰⁾ 개개의 문학 장르들은 자체적인 규칙들을 갖고 있는 다른 종류의 게임들 혹은 경기들로 비유될 수 있는데, 성경의 각각의 장르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이들 각각의 다른 게임들의 규칙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오는 혼란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의 장르에 따라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선은 장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모든 서신서가 공유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서신서를 읽고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피와 스투어트는 주장한다.⁵¹⁾ 장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성경 연구는 상상력을 동원한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심지어 각종 이단들이 자신들의 이단적 교리들을 세우는데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문자적인 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 반대로 오해하는

론』, 김의원 역, (서울: CLC, 1987) 327~399; 김구원, 376~384; 윌리엄 클라인 외 2인, 869~922.

47) J. 스코트 듀발·J. 다이엘 헤이즈, 181.

48) 크레이그 블롬버그·제니퍼 마클리, 20~21.

49) “구약에서 당신은 다른 문학형태들인 내러티브, 율법, 시, 예언, 지혜 등을 만나게 된다. 신약의 경우는 복음서, 역사, 서신, 묵시문학 등의 문학형식들을 만나게 된다. 또 구약과 신약은 모두 수많은 하부 장르들을 보여 준다(예를 들면, 비유들, 수수께끼들, 설교들).” J. 스코트 듀발·J. 다이엘 헤이즈, 182.

50) J. 스코트 듀발·J. 다이엘 헤이즈, 184.

51) “서신서는 모두 상황 문서(occasional document), 즉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왔고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문서이며, 특별히 주후 1세기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대개 그 상황이란 시정해주어야 할 어떤 행동이 있었다든지, 바르게 세워주어야 할 교리적인 오류가 있었다든지, 또는 좀 더 바르게 가르쳐야 할, 잘못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때를 말한다.” 고든 D. 피·더글라스 스투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79.

해석은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몇몇 사교집단(cult)의 신학은 그러한 오독(misreading)에 근거하고 있다. 제임스 W. 사이어(James W. Sire)는 크리스천 싸이언스는 주석적인 정당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많은 성경 구절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비둘기’는 신적인 과학, 순결과 평화의 상징이며, ‘저녁’은 인간적인 생각의 예,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생긴 피로, 모호한 관점, 평화와 쉼 등을 상징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⁵²⁾

장르를 고려하는 해석은 본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막아줄 뿐 아니라 본문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해석자들은 성경이 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들(성경이 쓰일 당시의 장르는 현대 문학의 장르들과 다른 경우도 있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각의 장르들의 특성을 고려한 해석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존 팀머(John Timmer)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대부분 은유적인 이야기로 규정하고 해석하기를 시도한다. “예수님의 언어는 은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 포도나무, 문, 하늘 떡, 목자, 부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시몬을 가리켜 반석이라,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은유에 은유를 더하여, 동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⁵³⁾

은유의 특징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잘 알려진 것과 동일시되기도 하며, 낯선 것과 친숙한 것이 대등하게 놓여 저서 긴장 관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결코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항상 여운처럼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풍성하게 만든다. 은유는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은유로 하나님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예수님은 보기 드문 등식(等式)들을 사용하시는데 예를 들어 생소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친밀하고 익숙한 일상생활의 장면들과 대등하게 말씀하심으로서 각 비유와 각각의 등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⁵⁴⁾ 비유 해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비유의 세부적인 묘사들까지 이에 대응하는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요점만을 확정지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단락들과 책들

윌리엄 클라인(외 2인)은 고려해야 할 문맥의 여러 범주들(문맥의 씨클)을 제시하고 있다.⁵⁶⁾ ‘인접 문맥’에 대한 연구는 ‘주제’와 ‘구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본문이 나오는 성경 단락의 중심 사상, 즉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 먼저 ‘본문을 앞서는 단락’과 ‘본문 자체’ 그리고 ‘뒤따르는 단락’의 주제를 결정하고, 이들 단락들을 묶고 있는 공통 주제를 발견하고 자기의 말로 간결하게 적어 본다. 구조를 살피는 일은 ‘저자가 어떻게 자료들을 구성 했는가’를 고찰하는 일로서 ‘주어진 구절 내의 개개 문장들을 인접 문맥의 총 주제에 맞게 이해해야 하듯이, 본문의 개개 문장들은 본문이 인접한 자료들과 맺고 있는 구조적 관계에 따라서 해석’⁵⁷⁾하는

52) D. A. 카슨, 『성경 해석의 오류』, 박대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2), 189.

53) 존 팀머,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 류호준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16.

54) 존 팀머는 이를 “하나님 나라 방정식” 혹은 “하나님 나라 등식”(The Kingdom Equation)이라고 명명한다(존 팀머, 20~21을 참고하라).

55) 로버트 H. 스타인은 그의 책에서 비유 해석의 네 가지 원리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로버트 H. 스타인, 『비유 해석학』,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8)를 참고하라).

56) 고려해야 할 문맥의 범주들은 ‘인접문맥’, ‘각 권의 문맥’, ‘저자의 저작들 전체 문맥(가능한 경우에만)’, ‘관련된 신구약 문맥’, ‘성경 전체 문맥’으로서 가장 가까운 인접 문맥부터 성경 전체 문맥으로 내려갈수록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윌리엄 클라인 외 2인, 324).

57) 윌리엄 클라인 외 2인, 326.

일이다. ‘**본문이 속한 책 전체의 문맥**’을 살피는 일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문맥이다. 이것은 본문이 속해 있는 책 전체에 비추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짧은 책들은 자세히 반복적으로 읽고, 긴 책들은 한 자리에서 한 번 이상 읽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피는 일은 성경 전체가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전제에 따라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 저자의 다른 책들의 병행구절, 동일 신약, 혹은 구약에 있는 다른 저자가 쓴 책들의 병행구절, 다른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쓴 책들의 병행구절을 살핀다.

3.2.2. 본문의 단어를 연구하라.

우리는 본문에서 번역상 논란이 되는 단어들,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난 단어들, 본문의 문맥상 특이한 의미가 암시되는 단어들, 결론해야 한다. 이런 단어나 용어들에 대한 단어연구는 헬라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경 저자 당시에 이르기까지의 이 단어들의 의미와 이 단어들이 나타나는 문학적 문맥 내에서 단어들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이 용어들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빛을 던져줄 것이다.⁵⁸⁾

개별적인 단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단어의 특성상 다중의미, 변천, 문법적인 용법이나 위치에 따른 차이, 단어의 문맥에 따른 용법상 의미의 차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어 연구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어원학적 단어 연구다. 이것은 단어를 그 형성된 과정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다. 특히 단어는 접두어나 접미어의 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가능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원학적 연구는 신약적 용례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고 아주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어서 적합한 의미를 끌어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 다음은 비교 분석적 단어 연구로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의 색인을 사용해서 성경에 사용된 모든 용례들을 살펴서 우리가 연구하는 본문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찾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연구가 가져다주는 유익은, 어떤 문맥에서 다소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용어를, 또 다른 문맥에서 보다 명백하게 사용된 경우의 도움을 얻어 그 표현이나 용어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데 있다.”⁵⁹⁾ 또한 단어연구는 좀 더 전문적으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혹은 동일 어족의 다른 언어들이나 고대 번역본들을 통해서도 연구될 수도 있다.⁶⁰⁾

우선 단어를 연구하려면 본문 중에 어떤 단어를 연구할 것인지를 선별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경의 단어들은 의미가 분명하고도 평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다 연구할 필요도 없고, 시간의 제약 때문에 모든 단어를 연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듀발과 헤이즈는 연구할 필요가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⁶¹⁾ 그 다음은 의미의 범주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사전을 통해 하는 연구로서 인접문맥과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단어의 가능한 의미들을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사전에 나오는 가능한 의미의 목록들 중

58) 크레이그 블룸버그·제니퍼 마클리, 21.

59)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정득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182~183.

60) 버나드 램, 183~186을 참고하라.

61) 중요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 비유적 표현들, 분명치 않거나 당혹스러운 혹은 어려운 단어를 선택할 것을 조언한다. J. 스코트 듀발·J. 다이엘 헤이즈, 209~210 참조.

에서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의미를 거꾸로 본문 속에 집어넣어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드시 피해야 한다.”⁶²⁾ 그러므로 가능한 원래 독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본문을 받아들였을까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시의 사상과 단어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전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미들 중에서도 그 단어가 들어 있는 본문의 문맥에 가장 잘 맞는 의미를 선택해야 한다. 윌리엄 클라인 외 2인은 어느 의미가 본문에 가장 잘 들어맞는가를 결정하는데 최고의 결정권자는 문맥이라고 단언한다.⁶³⁾ 단어 연구에 있어서도 모든 규칙을 뛰어넘는 규칙은 ‘문맥이 단어를 결정한다.’는 원칙인 것이다. 문맥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듀발과 헤이즈는 소위 ‘문맥의 씨클들’을 제안하고 있으니 참고하라.⁶⁴⁾ 또한 어떤 단어나 표현을 그것이 원래 지니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비유적 용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된 비유적 용법들은 은유법, 환유법, 제유법이 있다.⁶⁵⁾

박형용은 단어 연구를 위한 실제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라. (1) 해석자는 단어가 사용된 당시의 여러 가지 가능한 뜻을 찾아내야 한다. 어떤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해석자는 단어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 문맥에 가장 적합한 뜻을 찾아내야 한다. 단어의 뜻을 찾아낼 때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해석자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본문의 뜻을 밝히기보다(exegeis) 청중을 의식하고 청중의 구미에 맞게 해석하지 않았는지(eisegesis)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때로 현대의 형편에 맞추어 본문의 뜻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4) 해석자는 어원학(etymology)적인 연구가 때로 그 시대에 통용되면 단어의 뜻을 찾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원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해석에 적용해야 한다. (5) 해석자는 동의어지만 문맥에 따라 뜻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⁶⁶⁾

3.2.3. 본문의 문법과 구조를 살피라.

문법은 하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이에 따라 저자들은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독자들도 이에 따라 단어로부터 의미를 해독하기 때문에, 문법적인 분석은 올바른 해석의 필수적인 요소이다.⁶⁷⁾

문법은 두 요소, 즉 어형론(morphology)과 구문론(syntax)으로 이루어진다. 어형론은 개개 단어의 형태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서 문장 속에서 단어가 자신의 기능을 나타내고자 어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피는 일이고, 구문론은 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언어내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기 위한 언어 체계를 기술하는 일이다. “애매모호한 문법으로 이루어진 구문구조들(또는 사용되고 있는 문법적 형태에 대한 올바른 규명에 달려 있는 중요한 신학적 함의들)은 단어 연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⁶⁸⁾

모든 문장의 문법 사항을 살필 필요는 없고, 문법 사항 중에서 특이하거나 모호한 것, 그

62) J. 스코트 듀발·J. 다이엘 헤이즈, 216.

63) 윌리엄 클라인 외 2인, 391~392를 참고하라.

64) J. 스코트 듀발·J. 다이엘 헤이즈, 225를 참고하라.

65) 루이스 벨코프, 87~89를 참고하라.

66) 박형용, 319~320.

67) 윌리엄 클라인 외 2인, 395.

68) 크레이그 블룸버그·제니퍼 마클리, 21.

밖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해당 본문의 해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법적인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이다....그러나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칙들, 모호한 사항들, 난해한 것들(해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특징들)을 찾아내라. 이러한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본문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⁶⁹⁾ 본문에 대한 문법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각 품사별로 성경 원어의 독특한 형태와 쓰임새를 감안하여 본문을 읽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단어들의 격, 시제, 법, 태 등이 어떤 종류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성경원어의 동사 체계는 문장의 의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동사의 문맥과 관련하여 이해할 때, 동사는 표현되고 있는 동작의 법, 시상, 시간, 종류 그리고 태 등을 나타내 준다.”⁷⁰⁾

3.2.4.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라.

우리는 본문의 신학적 해석을 위해 본문을 신구약 전체의 문맥과 성경의 문맥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트렘퍼 롱맨 3세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보편적인 단계에는 신구약 전체의 문맥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그토록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우리의 구절이 어떻게 구약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이 유기체적인 통일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다양한 부분들이 모두 기여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문맥이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구절이든 전체 가운데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구약은 자기충족적인 문학체가 아니다. 오히려 구약은 다가올 성취에 대한 기대로 끝을 맺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신약은 그 성취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술하신 기사와 해석이라는 점을 믿는다.”⁷¹⁾

구속사적-그리스도 중심적 방법론

그레이다누스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해 소위 ‘**구속사적-그리스도 중심적 방법론**’⁷²⁾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구속사적-그리스도 중심적 방법은 보다 광의의 카테고리이면서 ‘주관적인 해석’에 대한 부담이 보다 적은 하나님 중심의 방법론을 보완해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 그 초점이 모아진다-곧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의 중심이며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는 사실을 정당하게

69) 더글라스 스튜어트, 146.

70) 윌리엄 클라인 외 2인, 411.

71) 트렘퍼 롱맨 3세, 46~47.

72) 그리스도 중심적 방법론이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한 7가지의 길들, 즉 “점진적 구속사, 약속-성취, 모형론, 유비, 통시적 주제들, 신약 내의 인용이나 관련 구절, 그리고 대조”를 제시하면서 본문을 이 7가지의 길들 중에 부합하는 것들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그의 책을 참고하라. 그레이다누스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구약을 강요하여 구약이 말하지 않는 바를 말하는 ‘알레고리화’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해석에 대한 염려 때문에 보다 광의의 카테고리인 하나님 중심적 설교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쳐 왔으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설교는 암시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 맥이 닿을 뿐 아니라, 신약의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토대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카테고리인 명시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주장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시드니 그레이다누스,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김진섭·류호영·류호준 역, (서울: 이레서원, 2002), 76을 참고하라.

평가하려고”⁷³⁾ 하는 것이다. 그레이다누스는 구약의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총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본문에 대한 기독교 설교는 유대 랍비가 전하는 설교와 달라야만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문맥과 성경 자체의 특성이 통일성, 영감성, 점진적 계시 등의 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설교자들은 메시아가 오신 이후 즉 신약 시대 안에서 있는 것이므로 구약 성경의 본문을 신약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읽어야 할 것이다.”⁷⁴⁾

골즈워디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점진성을 고려하여 장르별로 본문의 시기적인 위치를 구별하고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신학적 해석 부분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우리는 특정한 시기에 속하는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계시에 그 본문이 어떤 신학적 기여를 하고 있느냐의 맥락에서 그 기능을 확인하고자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 신학적 기여가 어떻게 성숙하여 결실하고 성취되는지, 즉 그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받는지 확인해야 한다.”⁷⁵⁾

그레이다누스는 ‘**구약의 이야기체(narrative) 본문**’은 어느 장르에서보다도 쉽게 성경의 하나님 중심적인 초점이 인간에게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면서, 본문을 총체적으로, 즉 그것의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영역들 안에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 이야기들을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선포”로 생각하는 것에 해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구약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 그리스도의 3대 직임을 가리키는 메시아적 연결과 예표론적 연결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히브리 이야기체 본문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은, 여기서는 예표론적 연결로 또 저기서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며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역사의 문맥 안에서 그 본문을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⁷⁶⁾

‘**선지서 본문**’은 드러난 강조점이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여 오히려 무시해 버리기 어렵다. ‘이 중심적인 특성을, 설교 준비 과정에서와 세부 사항에 주목할 때는 못보고 지나칠 수 있다...때때로 이 중심적인 요점은, 설교자들이 선지자의 인물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가게 된다.’⁷⁷⁾ 그레이다누스는 선지서의 메시아 예언들을 설교할 때 너무 성급하게 신약 성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약성경으로 옮겨가지 전에 반드시 구약 예언(자체)의 깊이를 -신약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 교회에 대한 그 본문의 연관성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레이다누스는 ‘**신약의 복음서 본문**’을 해석할 때는 복음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들이 많은데도, 그 초점을 인물에게 맞추어서 인간중심적인 설교가 되고 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갖더라도 인물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청중의 주의를 그리스도로부터 딴 곳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복음서를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 읽으면서 복음서의 구약성경에 대한 언급과 암시들을 놓치지 말 것과 복음서의 메시지를 신약 성경의 다른 글들(병행 본문)과 비교하여 성경 전체의 뒷받침을 받아 핵심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서신서 본문**’과 관련하여 그레이다누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

73)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35.

74)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중)』, 김영철 역, (서울: 여수론, 1998), 416~417.

75) 그레이드 골즈워디,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재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220.

76)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중)』, 417.

77)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중)』, 483.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구속, 그분의 언약, 그분의 뜻, 그분의 임재 등에 관한 메시지-라고 특 징지를 수”⁷⁸⁾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등장인물에 주의를 빼앗겨 하나님 중심적인 초점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그리스도와 관계있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진술은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비추어 해석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모형론적 해석

구약 성경은 상징이나 모형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서들과는 다른 성경이 지닌 특성을 따라서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될 수가 없다. “모형론이 성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책이 아니라 강요된 해석이라는 논쟁”⁷⁹⁾이 있을 정도로 교회사에서는 모형론과 관련하여 강요된 해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형론적 성경 해석은 정당성이 있다.⁸⁰⁾ 벌코프는 상징과 모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상징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을 가리킬 수 있지만 모형은 언제나 미래의 실체를 미리 나타낸다. 데이빗슨(Davidson)은 이렇게 말한다. ‘상징은 도덕적 진리를 가르치는 사실이다. 모형은 도덕적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 진리가 장차 실제로 실현될 것을 예고하는 사실이다.’(Old Testament Prophecy, p. 229) 성경에 나오는 모형들은 모두 한 종류의 것이 아니다. 모형적인 인물들, 모형적인 장소들, 모형적인 사물들, 모형적인 의식들, 모형적인 사실들이 존재한다.”⁸¹⁾

버나드 램은 모형론적 해석을 위한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⁸²⁾ (1) 신약 성경의 모형론을 주목하고 그것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살펴보라. (2) 신약 성경은 제사장 직과 제사를 수반하는 ‘성막’과 ‘광야의 생활’을 모형의 주된 두 분야로 한정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3) 주어진 모형에서 모형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을 정하라. (4) 신약성경의 분명한 권위가 없다면 모형들로부터 교리를 증명하지 말라.

벌코프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은 모형들은 오직 하나의 근본적인 의미만을 지닌다는 것은 기본 원리이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어떤 모형의 의미를 다중적으로 해석할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아울러 명심해야 할 것은 몇몇 모형들은 신약에서 한 번이 아니라 그 이상 성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과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다.”⁸³⁾ 그러나 이런 원칙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형론을 성경의 본래의 의도보다 확대할 위험성과 축소할 위험성이 공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3. 적용(application)하라.

78)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하)』, 김영철 역, (서울: 여수론, 1998), 620.

79) 버나드 램, 285.

80) 버나드 램은 그 정당성을 (1) 구약과 신약의 실제적 연결 (2)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구약의 모형들의 실제로서 그리스도와의 연결 (3) 구약 성경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는 신약성경이 어휘 등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버나드 램, 286~288).

81) 루이스 벌코프, 153.

82) 버나드 램, 303~305를 참고하라.

83) 루이스 벌코프, 155~156.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성경을 적용하지 않고도 성경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본문의 문맥을 살피고, 단어들을 분석하고, 몇 장씩 암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아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진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식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⁸⁴⁾

해석의 과정에서도 같이 적용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적용에서 본문의 의미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해돈 로빈슨(Haddon Robinson)은 ‘성경 석의에서보다 적용에서 더 많은 이단들이 설교된다.’고 하였다.⁸⁵⁾ 성경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본문 해석의 결과물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믿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올바르게 적용하는 일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라면 성경을 연구하며 해석하는 일과 함께 적용하는 일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강해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본문에 대한 주해의 결과물들만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강해설교가 아니다. 설교자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과제는 본문 중에는 오늘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영속적인 원리가 아니라 문화적인 상대성을 지닌 교훈들인 경우).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서 절대적이며 영속하는 신학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를 위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⁸⁶⁾ 그러므로 적용을 위한 세심한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해석의 과정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충실하고 올바른 해석 작업이 없이는 성경이 말하는 영속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없고 적실한 적용이 불가능하다.⁸⁷⁾ 현재까지 적용의 문제를 다루어왔던 모든 학자들이 상당한 의견일치를 보이는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1. 본문이 의도한 원래적 적용(들)을 결정하라.
2. 원래적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이 적용들이 지닌 구체성의 수준을 평가하라. 만약 원래적 적용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른 독자들에게 전환될 수 있을 경우 그 적용을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새로운 정황에 적용하도록 하라.
3. 원래적 적용이 새로운 정황으로 전환될 수 없다면 본문의 특정한 요소들이 반영하고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광의적인 초문화적인(문화를 넘어서는) 원리들을 찾아내도록 하라.

84) J. 스코트 듀발·J. 다이엘 헤이즈, 337.

85) 적용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오류는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에 발생한다. “1. 어떤 종류의 문맥이든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2. 본문이 속해 있는 특정한 책의 나머지 부분에 비추어서 본문을 해석하지만 역사적 문맥과 문학적 문맥을 온전히 고려하지 않는다. 3. 본문을 문학적 문맥과 역사적 문맥에 비추어 올바르게 해석하지만 본문의 원리들이 적용될 수 없는 현대적 상황들에 원리들을 적용하려고 한다.” 크레이그 블룸버그·제니퍼 마클리, 482.

86) “최근의 복음주의 진영의 연구는 적법한 적용의 열쇠는 보통 ‘원리화’라 불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의 일치에 이른 바 있다. 원리화란 어떤 내러티브(즉 본문) 속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타당성을 갖는 영적, 도덕적, 혹은 신학적인 원리들을 발견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클라인 외 2인, 774.

87) 송인규는 해석의 과정에서 문화적 요소와 초문화적 요소를 분리하고, 분리한 초문화적 교훈을 다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으로 옮기는 것이 적용의 핵심이며 본질이라고 말한다(송인규,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1), 24~26을 참고하라).

4. 원래적 적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오늘을 위한 적절한 적용들을 찾아내라.⁸⁸⁾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원리화⁸⁹⁾의 작업을 충실히 하였다면, 본문에서 파악한 초문화적이며 영속적인 원리가 성경 저자가 원래 의도했던 적용들과 충분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검증해야 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야 한다.

1. 특정한 원리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라.
2. 초문화적 원리가 본문의 모든 주요 요소들을 담고 있는가 유의하고 해석자와 편의적 관점 때문에 본문의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지 않는가를 유의하라.
3. 초문화적 원리가 특정한 정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역사 전반에 걸쳐 모든 세대의 문화들 속에서 원래적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라.
4. 초문화적 원리가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는 다른 비교할 만한 원리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
5. 초문화적 원리를 현재시제의 한두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그 원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뿐 아니라 의미 있게 되도록 하라.⁹⁰⁾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구약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연속성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인 접근은 구속 사역과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을 감안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송인규는 성경 적용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과 함정은 본문이 구속사의 전체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단지 본문과 우리의 상황 사이의 피상적인 유사성만을 근거로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문맥을 무시한 채, 직접적이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예를 들면 구약 본문의 인물 중심의 모범적 접근과 적용들)라고 하였다.⁹¹⁾ 우리가 문학적이며 역사문화적인 문맥을 충실한 연구가 뒷받침된 해석을 통해서 본문의 원래 의미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적용의 오류를 막고자 함이다.

이처럼 성경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역사(문화)-문학적인 문맥을 고려한 해석의 결과물들을 사용해야 하듯이, 우리는 성경의 신적인 문서로서의 특성을 감안한 신학적 해석의 결과물들을 고려해야 한다. 송인규에 따르면 성경의 중심 주제들(성전, 속죄/제사, 하나님의나라, 할례, 구원 등)은 형식과 내용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표현하였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다다랐고 그로 말미암아 계시의 점진적 발전 또한 그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의 긴밀한 연관성은 사라지고 내용만이 본질적으로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의 속죄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롬 3:23~25), 다른 형식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 어떤 주제가 등장할 때-비록 그것이 신약과 동일한 용어라고 할지라도-선불리 직접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직 구속사적 발전을 고려하여 (1) 새 언약 중심, (2) 그리스도 중심, (3) 교회(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구약의 본문을 해석해야 올바른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⁹²⁾

88) 크레이그 블롬버그·제니퍼 마클리, 500.

89) “원리화란 어떤 내러티브(즉 본문) 속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타당성을 갖는 영적, 도덕적, 혹은 신학적 원리들을 발견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클라인 외 2인, 774.

90) 크레이그 블롬버그·제니퍼 마클리, 514.

91) 송인규, 129.

결론

우리는 서론에서 성경해석에서 성경의 이중적인 특성이 고려되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바가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의 특성이 함께 고려된 균형 잡힌 견해야말로 성경적이고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역사적(문화적)-문법적(문학적) 해석과 신학적-정경적 해석(하나님 중심적-구속사적-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둘 중의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하게 되면 성경의 고유한 특징인 이중적 특성을 무시한 결과로 왜곡되거나 충실하지 못한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설교자가 이 두 가지 해석 방법을 충실하게 사용할 때에 극단적인 해석이 아닌 균형 잡히고 올바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